

일본 시코쿠의 임진왜란 전승과 예능

노성환*

(e-mail : nosh1@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조선인 의사 김덕방 전설 |
| 2. 우시오니 전승과 임진왜란 | 5. 마무리 |
| 3. 마쓰야마의 「토라마이(虎舞)」 | |

キーワード : 시코쿠(Shikoku), 에히메(Ehime), 우시오니(Ushi-oni), 토라마이(Tora-mai), 김덕방(Kim Duk - bang)

1. 머리말

일본의 시코쿠(四国)는 혼슈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가가와(香川), 도쿠시마(徳島), 에히메(愛媛), 고치(高知)라는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곳을 지배한 영주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의해 조선으로 출병하여 전쟁을 치른 경험들이 있다. 그 결과 시코쿠의 전역에는 임란과 관련된 이야기와 유적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필자는 몇 년 동안 걸쳐 이곳에 남아 있는 끌려간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추적 조사하여 지역별로 각각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한 적이 있다.

필자는 최근 2016년 7월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한국과 관련된 전승을 조사를 벌였다. 그러는 동안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몇 가지 사항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매년 지역의 신사에서 벌이는 축제 가운데 임진왜란과 관련된 놀이가 전승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와지마(宇和島)의 우시오니(牛鬼)라는 괴수와 마쓰야마(松山)의 「도라마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이(虎舞)」라는 호랑이 춤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고치(高知)의 명의(名醫)로서 이름을 날린 김덕방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덕방은 임진왜란 때 고치의 초소카베군(長宗我部軍)에게 끌려간 조선인 포로이다. 그는 고국인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일본에서는 명의로서 활약 하면서 일본의 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이 끝난 지 4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에도 침략자들의 땅인 일본에서 축제에서 놀이로 등장하고, 또 끌려간 조선인 의사가 일본에서 명의로서 이름을 떨쳤음에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특히 김덕방에 관한 것은 일부 한의학계를 제외하고는 인문학분야에서 관심조차 가진 적이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일본 측 기록에만 있다. 침술이 뛰어나 임진왜란 후 나가타(永田徳本)에게 침구의 비법을 전하였다」라고만 간략하게 나와 있다. 이것으로 그의 활동상황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은 한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그의 저서로 추정되는 『침구극비전(鍼灸極秘伝)』이 박상형, 오준하에 의해 국역, 해제판이 나왔지만, 그의 제자가 나가타 도쿠혼(永田徳本)이라는 사실이외에 그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한의학자 함정식은 그의 이름이 일본 측 자료 『양동창화후록(兩東唱和後録)』에 김득배라는 이름으로 무라가미 케이난의 스승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는 임진왜란 당시 피로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¹⁾고 추정할 뿐 그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민속놀이인 「우시오니」와 「도라마이」 그리고 김덕방에 관한 전승과 자료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시코쿠의 임란 전승과 민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2. 우시오니전승과 임진왜란

일본의 요괴 중에 우시오니(牛鬼)라는 것이 있다. 성격이 잔인하고 난폭하며 독을 품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요괴인데, 이들 종족은 주로 혼슈(本州)에서는 미에현(三重), 와카야마(和歌山), 야마구치(山口) 오카야마(岡山), 시마네

1) 함정식(2010) 「조선통신사의 침뜸 의학교류 - 『양동창화후록』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10)』 조선통신사학회. p.14

(島根) 등지에 살며, 시코쿠에서는 4개현 전역에 끌고루 흩어져 살고 있다. 다시 말하여 동일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서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괴이다.

그들의 활동무대가 서일본 지역의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지역마다 생김새도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머리가 소이고, 그 아래의 몸통은 도깨비와 같다고 하며, 또 어떤 지역에는 그와 반대로 머리가 도깨비이고, 아래의 몸통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 소의 머리, 도깨비의 몸통, 곤충을 날개를 가지고 있어 하늘을 날라 다닌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다. 특히 에도시대(江戸時代)에 발행된 요괴의 그림책 『백괴도권(百怪図巻)』²⁾, 『백귀야행회권(百鬼夜行繪巻)』³⁾, 『도화백귀야행(画図百鬼夜行)』⁴⁾ 등에서는 우시오니가 소머리에 거미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실로 그 모양도 다양하게 표현되는 요괴이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전승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한국과 관련시켜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이 있다. 그곳은 오카야마현의 우시마도(牛窓:현 瀬戸内市)와 에히메현의 우와지마(宇和島)의 우시오니이다. 전자의 오카야마의 우시오니의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중애천황과 신공황후가 삼한(신라)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카야마에 들렀을 때, 진린(塵輪)이라는 8개 머리가 달린 괴물이 검은 구름을 타고 중애천황을 공격했다. 이에 중애가 활을 쏘자 진린은 몸과 머리가 둘로 쪼개 지더니 죽었다. 그러나 중애천황도 진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후 신공이 신라에서 귀환하여 오카야마의 해상을 지나갈 때 커다란 소가 (되어) 나

2) 1737년 에도 중기의 화가 사와키 스시(佐脇嵩之:1707-1772)에 의해 그려진 30점의 요괴를 그린 그림책.

3) 이 책은 요괴들이 밤에 행렬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명치(明治), 대정연간(大正年間)에 걸쳐 수없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편이다. 아마도 당초에는 수종의 그림책이 있고, 그것을 모사 또는 전사한 결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4) 1776년(安永5)에 간행된 도리야마 세키엔(鳥山石燕)의 요괴 그림책. 구성은 「전편음(前篇陰)」, 「전편양(前篇陽)」, 「전편풍(前篇風)」으로 되어있다. 각부를 모두 「전편(前篇)」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후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후에 간행된 『금석화도속백귀(今昔画図続百鬼)』가 후편에 해당된다. 도리야마는 그 후에도 요괴에 대한 그림책을 『금석백귀습유(今昔百鬼拾遺)』, 『백귀도연대(百器徒然袋)』를 간행했다. 이들 책들을 현대에서는 「화도백귀야행(画図百鬼夜行)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다.

타나 배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 때 스미요시신(住吉明神)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던져 날려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을 소가 넘어졌다는 뜻의 일본어인 「우시마로비」라하였던 것이 훗날 우시마도로 바뀌었다 한다. 그 우시오니는 진린이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⁵⁾

이 이야기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지은 『본조신사고(本朝神社考)』에 수록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우시오니는 삼한을 정벌하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괴물로 되어있으며, 그 모양이 머리가 8개이고, 검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진린이 죽어서 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우시오니라고 설명되어있다. 위의 내용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있지만, 오카야마의 우시오니는 신라를 정벌하려는 신공의 부대를 저지하는 세력이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는 진린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설화가 생겨나기도 한다. 즉, 삼한의 왕이 신공의 침공을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왕자가라고도(唐琴)를 일본으로 파견하는데, 진린은 가라고도의 휘하의 장수이었다고 하며, 또 중애로부터 죽음을 당한 진린이 우시오니로 변하여 신공을 공격한 것은 일본군에 대한 원한 때문에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원귀로서 이승에 남았기 때문이라고 했다.⁶⁾

이에 비해 에히메(愛媛)에서 출몰하는 우시오니는 얼굴이 용이고 몸은 고래라고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우시오니의 모습을 보면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몸통에다, 기다란 2개의 뿔 달린 얼굴과 길쭉한 꼬리 끝에 칼을 매달고 있다. 비록 얼굴이 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자탈에다 소의 뿔을 단 느낌이 든다. 이것이 우시오니의 기본형이다.

이러한 기본형을 살려 지역에서는 각기 활용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몸통을 부풀려 크게 만들고, 붉은 색깔의 옷을 입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검은 색깔의 옷을 입혀 타 지역과의 구별을 짓기도 한다. 각 지구마다 만든 우시오니를 매년 7월 22-24일에 열리는 「와레이대제(和靈大祭)」⁷⁾에는 우와지

5) 西川宏(1984), 『岡山と朝鮮』 日本文教出版. p.93

6) 国分直一(2011), 『日本民俗文化誌--古層とその周辺を探る』 国立台湾大学図書館. p.112

7) 우와지마시(宇和島市)의 화령신사에서 매년 7월23日-24일에 실시되는 여름축제이다. 이 신사의 제신은 초기 우와지마번(宇和島藩)의 가로인 안베 세이베(山家清兵衛)이다. 안베는 1620년(元和6) 영주인 다테 히데무네(伊達秀宗)의 밀명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그 후 히데무네는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산뢰화령사(山頼和靈社)를 건립한 것이 화령신사의 출발이다. 즉,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안베 세이베의 원령을 위로하는 행사에 우시오

마 시내의 각 지구는 물론 외곽에 있는 산간 지역과 고치현의 니시도사무라(西土佐村)에서도 참가하여 거리의 행진을 벌임으로써 자기 지역의 우시오니를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도 우시오니의 유래에 관한 설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한국과 관련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호환(虎患)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다. 1924년(大正14)에 고치현 하다군(幡多郡)의 관청인 역소(役所)가 편찬한 『고지현번다군지(高知縣幡多郡誌)』에 의하면 에가와사키무라(江川崎村=현 西土佐村)의 우시오니에 관한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례2>

문록연간(文祿年間)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정벌을 행할 때 병사들이 종종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진중(陣中)에 이요(伊予)의 사람으로 오즈 고로(大洲五郎)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시오니의 모형을 만들어 그 위에 타고, 병사들은 이를 짊어지고 호랑이를 향해 돌진하자 이에 호랑이는 놀라 도망갔고, 그로부터 호환을 입는 자가 없었다. 우리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여 돌아오자마자 지역민들은 이를 만들었고, 신사의 제의에 사용했다.⁸⁾

이상에서 보듯이 우시오니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쳐들어온 병사들이 호환을 자주 입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오즈 고로라는 자가 커다란 괴물의 인형을 만들어 호랑이를 놀라게 하였더니, 그 이후로부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 귀국 후에도 이를 살려 신사의 행사 때 마다 대나무를 이용하여 커다랗게 만든 것이 우시오니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전승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미나미우와군(南宇和郡) 미쇼초(御莊町)에 있다. 여기서는 우시오니가 산에서 출몰하는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영주인 다테가(伊達家)의 허락을 받아 만들어 사용하였더니 과연 늑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호랑이 대신 늑대로 되어있지만 인간에게 무서운 짐승을 퇴치하기 위해 우시오니를 이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된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으나, 우시오니의 기원을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짐승들을 퇴치하는데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했다는 설 가운데 조선

니의 행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위령제보다 더 유명해졌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소싸움도 열린다.

8) 高知県幡多郡役所(1925), 『高知県幡多郡誌』 幡多郡. pp.97-99

의 호랑이를 퇴치설이 들어있는 것이다.

둘째,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주성을 공략할 때 사용한 구갑차(龜甲車)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요괴라는 설이다. 이 설의 대표자는 에도 후기의 역사가이자 사상가, 한시인(漢詩人)인 라이산요(賴山陽:1781-1832)이다. 그의 저서 『일본외사(日本外史)』에 의하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조선의 경상도 진주성을 공격할 때 구갑차를 만들어 성 위에서 조선 측이 쏘아대는 화살과 던지는 돌을 막았다. 이것이 우시오니의 시작이다」⁹⁾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구갑차란 딱딱한 판자로 상자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다 소가죽으로 덮고, 소머리를 앞에 매달아 얼굴로 삼고, 몸통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 이것을 끌고 들어가 성벽에 붙여놓고 땅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려 성의 함락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담을 도오도 다카도라(藤堂高虎:1556-1630)¹⁰⁾에 의해 우와지마에 전해지고, 이를 들은 우와지마 사람들이 구갑차를 응용하여 우시오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래담에 근거를 두고 지역민들은 우시오니를 끌고 퍼레이드를 벌일 때 사람들이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부-부-」 하며 소리를 내며 따라가는데, 이는 기요마사가 진주성을 공격할 때 이러한 피리를 불어 신호로 사용한 것을 흉내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우시오니의 발생을 진주성 공격 때 사용한 기요마사의 구갑차에서 찾기도 한다. 이처럼 우시오니를 원래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요괴로 보지 않고 조선포랑이 혹은 진주성을 함락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한 것에서 시작된 가공적인 요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고 우시오니를 일본 재래의 요괴로 보는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에히메에서도 우시오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우시오니는 사람과 가축을 습격하여 피해를 주는 요괴인데, 이를 퇴치하기 위해 대결을 벌인 수험자 야마부시(山伏)가 소라고둥을 불며 진언을 외웠더니 우시오니가 꿈쩍을 하지 못했다는 전승도 있다. 이때 야마부시가 칼을 뽑아 우시오니의 미간을 찌르고 몸을 갈기 받기 자르고 베어내었다. 그랬더니 우시오니의 몸에서 피가 7일 밤낮 동안 흘러내려 못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9) 賴山陽(1776) 『日本外史 上』 岩波文庫, p.99

10) 전국시대와 에도 초기에 걸쳐 활약한 무장. 우리에게서는 정유재란 때 수군을 이끌고 漆川梁海戰에서 원군의 수군과 싸웠으며, 그 후 남원성 전투와 명량해전에도 참가했다. 특히 그의 축성기술에 뛰어나 시코쿠의 우와지마성(宇和島城), 이마바리성(今治城) 등을 축성한 인물이다. 그리고 우와지마의 인근 오즈(大洲)의 영주도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와지마와의 인연이 깊다 하겠다.

이 에히메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시오니의 원형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훗날 그들의 무용담과 더불어 임란과 관련을 지어 설명하게 된 것이 위의 두 가지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임란에 대한 집착은 가가와현의 근향사(根香寺: 네고호지)의 우시오니 전설에서도 나타난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3>

옛날 아오미네산(靑峯山)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수 우시오니가 살고 있었다. 우시오니는 가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여 활을 잘 쏘는 야마다구란도 다카기요(山田藏人高濤)에게 퇴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부탁을 받은 다카기요가 매일 산에 들어가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우시오니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카기요는 21일간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근래사의 본존에 기도를 올렸더니 21일 째 되던 만원(滿願)의 날 새벽에 우시오니가 눈을 번득이며 나타났다. 다카기요에게 덤벼드는 우시오니를 향해 활을 쏘았다. 3번째 화살이 우시오니의 입안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자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다. 이를 한참동안 추적하였더니 사다가부치(定ヶ淵)라는 저수지가에 죽어 있었다. 다카기요는 우시오니의 뿔을 잘라 근향사에 봉납하였고, 우시오니의 모습을 그린 족자 그림이 근향사에 지금도 잘 보관되어 있다.¹¹⁾

이러한 설화를 가지고 있는 근향사는 최근 절 입구(주차장) 부근에다 동으로 만든 우시오니를 세워놓고 있다. 그 모습이 몸에는 딱딱하고 굵은 털로 덮여있고,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나있으며, 입에는 날카로운 잇빨 2개를 바깥 양쪽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박쥐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4개의 예리한 손가락을 가진 갈퀴 모양의 손이 있고, 게다가 기다랗고 큼직한 귀에 부릅뜬 두 눈으로 두 팔을 벌리고 서있다. 마치 이것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괴수 용가리를 연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위의 설화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야마부시 또는 무사가 주력 또는 무력으로 우시오니를 퇴치하는 지극히 평범한 우시오니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절에는 우시오니를 그린 족자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나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속신이 있다는 것이며, 또 퇴치한 주인공으로 야마다구란도 다카기요라는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1) 「塩江 弓の名人「山田藏人高濤」<第二回>」 blogs.yahoo.co.jp(검색일2016.08.13.)

그렇다면 야마다구란도 다카기요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에 관한 이야기가 가가와현교육위원회(香川県教育委員会)가 펴낸 『신편향천총서(新編香川叢書)』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 중 우리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어, 이를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4>

증진상인(增眞上人)의 숙부를 야마다 구란도(山田藏人)라고 한다. 그는 나가무라(中村)의 출신이며, 그의 선조는 다치바나(橋)라는 성씨에서 파생된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1294-1336)의 별족(別族)이다. 남조(南朝)가 멸망한 이후 이곳에 와서 살았다. 힘이 강건하여 당시 그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신장 또한 6척이나 되어 그야말로 장대하고 위용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화살을 잘 쏘았다. 이러한 그가 문록연중(文祿年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할 때 구란도도 바다를 건너 참전했다. 조선에 머무는 동안 어느 빈 절에 들어가 진언종(眞言宗)의 13불상(十三佛像)과 열반상(涅槃像) 및 요발(饒鉢)을 가지고 돌아와 야스하라(安原)의 최명사(最明寺)에 기부하였는데, 그것이 절의 보물이 되었다.¹²⁾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야마다구란도 다카기요는 다치바나라는 몰락한 중앙의 귀족 후손으로 육중한 몸과 강건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시오니를 활로 퇴치한 영웅이지만,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의 병사로서 비어있는 사찰에 들어가 불상 등을 훔쳐가는 약탈자이다. 즉, 위의 설화는 비록 우시오니의 발생이 한국과 관련이 없지만, 우시오니를 퇴치한 자가 한국으로 간 약탈자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신라를 느닷없이 신탁의 이름으로 정벌에 나서는 신공황후의 전승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신라의 보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듯이 그도 조선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자신의 고향 절에다 기증하여 조선의 것이 일본의 보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한 그를 임란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시코쿠에서는 우시오니를 한국과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12) 「塩江 弓の名人「山田藏人高濤」<第一回>」 blogs.yahoo.co.jp(2016년 8월13일 검색)

3. 마쓰야마의 「도라마이(虎舞)」

에히메현의 마쓰야마시(松山市) 간다초(神田町)에 위치한 이쓰쿠시마신사(巖島神社)에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제의(마츠리)가 벌어지는데, 이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놀이 중의 하나가 「도라마이」라는 호랑이 춤이다. 현재 이것은 「후루미쓰 도라마이 보존회(古三津虎舞保存会)」에 의해 전수되고 있으며, 이들은 축제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날 밤 1시경 미야다시(宮出:신이 탄 가마가 신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가 시작되기 전에 연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호랑이 춤의 등장인원과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호랑이 인형 속에 들어가 춤추는 자가 2명(머리담당 1명, 꼬리 담당 1명), 세코(勢子)라 불리는 포수담당 1명, 피리 담당 1명, 북 담당 1명으로 모두 6명의 인원이 등장하여 공연을 한다. 공연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대략 8-10분 정도이다. 그리고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는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호랑이가 피리소리와 북소리에 맞추어 미처 날뛰듯이 춤을 추는 호랑이를 후반부에는 사냥꾼이 나타나 호랑이와 사투를 몇 차례나 반복하여 벌이다가 이윽고 화승총으로 겨누어 쏘아 쓰러뜨린다는 것이다. 이때 포수는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5>

(호랑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이국의 호랑이 사냥에 피리는 사냥꾼과 하나, 많이 들어 유명한 「센리가하마(千里ヶ原)」, 호랑이가 울면 바람이 일어나니 과연 맹수 중의 맹수로다. 『이십사효(二十四孝)』 13)의 양광(陽光)은 효행의 덕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물론 자신의 목숨도 구했다. 그 같은 효행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충과 의로 충만한 나의 용기가 조선(唐)에 건너가 힘을 발휘하리라. 점점 세력이 커지는 일본의 힘. 호랑이는 물론 오니(鬼)라도 뱀이라도 단번에 쓰러뜨리라.¹⁴⁾

13) 중국 원나라 때 광거경(郭居敬)이 유교적 효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효자 24명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이다. 이것이 일본에 전래되어 사찰 등의 건축물에 인물도로 그려지기도 하였으며, 또 오도기조오시(御伽草子)와 같은 소설의 재료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寺子屋)의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14) 이 노래가사는 이해하기 쉽게 원문의 내용을 약간 의역을 가한 것이다. 그 자료는 보존회 회장인 오카다 도시야스(岡田利康)씨에게서 받은 유인물에 의거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虎の心が 読めたりや、読めたりや、さては異国の虎狩なるか、あの

위의 노래에서 보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호랑이 사냥을 와토나이의 「센리가하마」와 양광(陽光)의 고사와 비유하고 있다. 센리가하마의 호랑이 고사는 치카마쓰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1653-1725)¹⁵⁾의 작품 『국성야합전(国姓爺合戦)』에 나오는 주인공 와토나이(和藤内=鄭成功)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와토나이는 중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가사키(長崎) 히라도(平戸) 출신 정성공(鄭成功:1624-1662)¹⁶⁾을 말한다. 그가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이복 누나 남편인 사자성(獅子ヶ城)의 성주 고쇼군칸키(五常軍甘輝)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가던 도중 센리가하라(千里ヶ原)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제압하고 호랑이 사냥꾼들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¹⁷⁾ 그리고 양광(陽光)은 아마도 양향(楊香)의 오기인 것 같다. 중국의 대표적인 24명의 효자의 이야기를 모은 『이십사효(二十四孝)』에는 양향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다. 양향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갔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이 날뛰었다. 이에 양향은 호랑이가 물러나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들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자, 아버지만을 살리기 위해 천신에게 자신이 잡아먹힐 테니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더니 그때까지 거칠게 굴던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고, 이에 두 사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고사를 자신들의 호랑이 사냥과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사냥이 비록 와토나이와 양향이 호랑이를 대하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충만한 용맹한 마음

笛、太鼓は勢子のもの、ここは聞こえし千里ヶ原、虎いなゞけば風おこる猛獣の精とおほえたり、二十四孝の陽光は孝行の徳により自然とかれし悪孝の難、その孝行におとるとも、忠義に勇む我が勇氣唐に渡って力を試し、勢力増します大和力、虎はおろか鬼でも蛇でも一とくじき」

- 15) 에도시대의 죠루리(浄瑠璃:인형극) 및 가부키(歌舞伎)의 작가. 본명은 스기모리 노부모리(杉森信盛), 예치젠(越前国: 현재 후쿠이현=福井県)의 무사 스기모리 노부요시(杉森信義)의 차남. 아명은 지로키치(次郎吉). 호는 평안당(平安堂), 소림자(巢林子), 불이산인(不移山人).
- 16) 중국 명·청 교체기에 활동했던 명나라의 군인 겸 정치가이다. 남명의 용무제로부터 명 황실의 성씨인 주(朱)를 사성받았으므로, 「국성야(国姓爺)」라는 별칭으로 널리 불렸다. 훗날 타이완 섬을 점령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록싱야(Koxinga)」라고 불리었고, 일본에서도 「고쿠센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들 호칭은 모두 「국성야」의 민남어식 발음인 「Kok-sèng-iá」에서 유래한다. 그의 시호는 연평무왕(延平武王) 또는 조무왕(潮武王)이다.
- 17) 와토나이의 호랑이 퇴치담은 지역과 전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어떤 경우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고국인 중국 센리가다케(千里ヶ竹)에서 길을 잃고 그곳에서 호랑이를 만나 퇴치하고, 이를 지켜본 달탄병(韃靼兵)을 부하로 삼아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으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역으로 표현하자면 조선의 호랑이는 그들의 용맹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대상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호랑이 사냥은 와토나이와 양향의 경우와 다르다.

원래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호랑이란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호랑이를 소재로 한 춤놀이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공연되는 것일까? 보존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카다 도시야스(岡田利康: 81세) 씨¹⁸⁾의 말을 빌리면 그에 대한 기원은 임진왜란까지 올라간다. 마쓰야마성(松山城)의 초대 성주였던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1563-1631)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을 받아 임진과 정유의 왜란에도 군사를 이끌고 출병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 정유재란 때 어느 날 봄 조선의 산 속에서 맹호를 사냥하는데 성공하여 그 머리와 가죽을 히데요시에게 헌상하여 그를 매우 기쁘게 한 옛 기록이 있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예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조선호랑이를 죽이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능을 지역의 축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왜군의 우두머리인 요시아키가 혼자서 직접 호랑이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토 가문에 대한 기록인 『가등가명공보(加藤嘉明公譜)』에 의하면 가토 요시아키가 조선에 있었을 때 그의 휘하의 병사가 총으로 호랑이를 죽였고, 그 호랑이를 복제하여 히데요시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¹⁹⁾ 이처럼 가토의 휘하의 부하들이 조선의 호랑이를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호랑이 춤이 다른 곳도 아닌 후루미쓰(古三津)에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지역민들은 호랑이 사냥에 성공한 사람은 나카지마 쇼우에몬(中島庄右衛門)의 부하인 엔도 코타로(遠藤小太郎)와 모리가와 히코베(森川彦兵衛)인데, 이들은 총으로 각각 한 마리씩 잡았으며, 이들 두 사람과 그들의 상관인 나카지마 모두 후루미쓰(古三津) 출신이다. 이를

18) 2017년 2월 28일 그가 살고 있는 간다초 후루미쓰(古三津)의 자택을 찾아 인터뷰를 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도라마이」는 명치(明治) 중기에 잠시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현존하는 자료에 1933년(昭和8)에 40년만에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에 다시 중단되었다가 1955년(昭和30)에 다시 복원되었다 한다. 회원들은 매월 2번씩 공민관에서 연습을 하며, 후계자 양성을 위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공연도 하며,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한다.

19) 기록의 원문은 「於高虎狩取 頭皮何も不殘目錄を添到來候 誠希有之儀候条, 別而悦思食候 猶本多若峽守可申候也 五月二十五日 秀吉 朱印 加藤左馬殿」으로 되어있다.

계기로 후루미쓰 지역민들이 「도라마이」라는 호랑이 춤을 만들었으며, 현재 호랑이 춤은 마쓰야마의 전통예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조선의 호랑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도라마이」를 신사에 봉납하는 것일까?

호랑이 춤은 비단 이곳 마쓰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자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는 적지만, 동북과 관동의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남아있다. 이들의 예능에서 나타난 호랑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출전한 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가령 미나모토 다메토모(源為朝: 1139-1177)가 동북지방을 정벌할 때 떨어진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호랑이 인형을 입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다메토모를 신으로 모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스카시(横須賀市) 히가시우라초(東浦町)의 「다메토모신사(為朝神社)」에서는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에 호랑이 춤을 봉납하는 행사가 거행된다.

둘째는 바다로 나간 어부들의 무사귀환의 의미가 있다. 즉, 어부들은 흔히 「판자 1장, 그 밑은 지옥(板子一枚、下は地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족에게 있어서 어부들의 무사귀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그들은 「호랑이는 하루에 천리를 가고 천리를 돌아온다」라는 속담을 근거로 「호랑이 춤」을 춤으로써 호랑이처럼 쏜살같이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동북지역의 가마이시(釜石), 오쓰치(大槌)의 연안지역 어민들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축제기간에는 반드시 호랑이 춤을 춘다는 것이다.

셋째는 호랑이에게는 화재를 방지하는 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수험자(修験者=山伏)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공중에 범 「호(虎)」자를 쓰는 작법이 있다. 이를 위하여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 추는 호랑이 춤은 동북의 게센(気仙) 지역에 전해진다. 그리고 산리쿠(三陸) 연안에 있어서도 종종 화재방지를 위해 호랑이 춤을 춘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들의 호랑이 춤은 모두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 춤을 춤으로써 기분이 고무되고,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며, 또 화재를 방지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즉, 호랑이는 벽사(辟邪)와 초복(招福)을 보장해주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묘사되어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강한 이들 지역에서는 결코

호랑이를 죽이는 사냥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마쓰야마는 호랑이를 죽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더 이상 길상의 동물이 아닌 것이다. 미쳐 날뛰는 호랑이를 죽임으로써 평화를 되찾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여기서 호랑이는 어디까지나 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의 상징이며, 그것을 죽이는 포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을 대변하는 인물로 되어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그것이 12시 넘어 1시경에 미야다시가 신사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진행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조선의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영험한 동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에게 퇴치되어야 하는 사나운 맹수에 불과하다.

일본 연구가 최병국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벌인 조선 호랑이 사냥에 관한 기록들이 일본의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데, 특이한 점은 그것들이 임란 이후 100여 년간 일본 문예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18세기부터 갑자기 각종 문예에 등장하여 대중 속에 급속히 파급이 되었다고 한다.²⁰⁾ 이같이 파급된 호랑이 퇴치담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가토 기요마사와 앞에서 언급한 와토나이의 호랑이 퇴치담였다. 그리고 간혹 중국 무송(武松)의 호랑이 퇴치담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것을 소재로 당시 화가들은 앞 다투어 그림을 그렸다. 기요마사는 누구나 다 아는 임란 때 우리를 쳐들어온 왜장이다. 그리고 무송은 중국의 소설 『수호전(水滸傳)』에 등장하는 인물이다.²¹⁾ 그러므로 정성공과 무송은 중국의 호랑이를 퇴치하는 것이지만, 기요마사는 그것과 달리 조선의 호랑이를 퇴치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쓰야마의 「도라마이」는 와토나이의 무송의 것과는 다르며, 전쟁 중에서 수행된 기요마사의 무용담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무용담을 효과 있게 연출하려면 할수록 우리의 호랑이는 더욱 거칠게 행동해야 하며, 끝내 총에 맞아 죽는 불쌍한 역할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쓰야마의 「도라마이」에 등장하는 조선 호랑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20) 최병국(2011) 「에도시대 말 대중문화 속의 호랑이 사냥 - 가토기요마사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48)』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58

21) 『수호전』의 무송은 천상성(天傷星)의 환생으로 서열은 양산박(梁山泊) 제 14위의 호한(好漢). 혼명(渾名)은 행자. 이는 항상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명(渾名)은 행자(行者)이다. 날카로운 눈매와 두터운 눈썹을 가지고 힘이 세고 덩치가 크며, 술도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호랑이 퇴치담은 그가 고향인 청하현(淸河縣)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양강(景陽岡)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퇴치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곡현(陽穀縣)의 도두(都頭)로 추대되기도 했다.

4. 조선인 의사 김덕방 전설

조선인 경동은 고치에서는 전설적인 명의로 통한다. 그는 1593년 임란 때 초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에게 포로가 되어 도사(土佐)에서 정착한 자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도사 이야기(土佐物語)』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6>

경동이 조선에 있었을 때 그는 죽는 병도 고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나라의 보배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였지만 도사에 정착한 후 1년 동안은 병을 고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일마저 일어났다. 그리하여 지역민들은 그를 두고 외국에도 저러한 엉터리 의사가 있다고 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놀려댔다. 경동은 이에 크게 부끄럽게 여겼으며 또 근심에 빠져 잠시 칩거생활에 들어가 밤낮으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어느 날 조선과 일본은 토양이 틀리며, 또 인성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감안하여 약을 지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은 다시 유명해졌다.²²⁾

이상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의 초기 일본생활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개업을 하였지만, 일본의 풍토가 조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여러 번 실패를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까지 벌어져 주변사람들로부터 돌팔이 의사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풍토와 일본인의 인성까지 파악한 연후에야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성공적인 의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교훈적인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그가 당시 얼마나 유명한 명의로었는지 『도사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임신부의 진맥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느 집에 초대되어 임신부를 진맥했다. 경동이 복맥을 짚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22) 平尾道雄外 4人編(1976) 『土佐國崎人伝』 『土佐之國史料類編 皆山集(5) -歴史(4)編-』 高知県立図書館, p.40

사내아이인데, 3살 때 역병을 앓을 것이다. 지금 임신부가 약을 복용하면 그 때가 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옛날 편작(扁鵲), 순우위(淳宇意)과 같은 신선들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물며 오늘날의 의사가 그러한 의술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하며 화를 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여 경동을 비웃으며, 욕을 했다.²³⁾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윽고 달이 차고 아이를 낳았는데, 과연 그의 예견대로 여인은 사내아이를 생산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살이 되던 여름부터 안색이 변하여 병색이 만연하더니 3살이 되던 봄부터 역병의 증세를 띠기 시작했다. 부모는 이에 크게 놀라고 경동을 찾아가 사정을 하며 약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경동은 역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음양의 기운이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태중에 있었을 때 약을 복용하였더라면 깨끗이 나왔을 것을 발병한 후에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하며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 그 후 아이는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²⁴⁾

둘째는 어느 소녀의 진맥 이야기이다. 5, 6살 된 어느 소녀가 왼쪽 발뒤꿈치가 가려워 손톱으로 긁었더니 피부에서 작은 흰 돌이 나왔다. 이에 부모가 깜짝 놀라 경동을 찾아가 보였더니, 경동이 "앞으로 이같은 돌이 또 하나가 더 나올 것이다."하였다. 그의 말대로 며칠 후 또 한 개의 돌이 나왔다. 그리하여 부모가 다시 경동을 찾아가 물었더니 "이 돌은 사람 몸 안에서 돌다가 어깨를 넘어가면 불치의 병이 된다. 그러나 이 돌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장수할 징조이니 90살까지는 아무 탈 없이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 아이는 일생동안 무병하였으며, 9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²⁵⁾

셋째는 경동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의 영주인 초소카베 모토치카도 경동을 매우 신뢰했다. 그리하여 히데요시가 있는 교토로 갈 때는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갔다. 그에 따라 그는 교토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그곳에서도 그의 의료 활동도 계속되었던 것 같다. 『도사 이야기』는 그 상황을 교토에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의 의술은 교토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질투를 느낀 교토의 의사들이 연회에 경동을 초청하여 음식에 독을 타서 먹였다. 경동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23) 앞의 책, 平尾道雄外 4人編(1976) p.40.

24) 앞의 책, 平尾道雄外 4人編(1976) p.41

25) 앞의 책, 平尾道雄外 4人編(1976) p.41

말하기를 “이 정도의 독이면 해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날 반드시 그대들이 번득이는 칼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독으로 내가 죽으마.”하고 말하고, 품속에서 1권의 서책을 내더니 “이것은 만민을 구하는 비전이다. 일본에 전해지는 것이 한이 남는다.”하며 불 속에 던져 넣어 태워버리고는 자신도 숨을 거두었다. 이를 두고 『도사 이야기』는 화타(華佗:145-208)²⁶⁾가 옥중에서 1권의 책을 태워버리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⁷⁾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 명의 경동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전설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도사(土佐)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명의였으며, 그의 명성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의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펴낸 허준(許浚:1539-1615)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지역민들로부터 경동으로 불렸던 조선인 의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또 어떠한 사연으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일까?

경동의 본명은 김덕방(金德邦)으로 알려져 있다. 마쓰오카 나오노리(松岡尙則)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는 김덕방이라는 이름이외에도 김덕(金德), 김덕허(金德許), 김덕허덕원(金德許德原), 김득배(金得拜), 김득허(金得許)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다.²⁸⁾ 그 중 「김덕」은 김덕배를 줄여서 만든 이름이었고, 이것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킨토쿠」가 되며, 다시 이것이 「킨톤(經東)」으로 되어 마치 이것이 정식의 이름인 것처럼 일반인들은 그를 불렀다 한다.²⁹⁾ 즉, 경동은 일본어로 킨톤으로 불렸으며, 본명은 김덕방이라는

26) 중국 후한 말의 의사, 이름을 부(虜)라고도 하며, 자는 원화(元化). 예주(予州) 패국(沛國) 초현(譙縣) 사람이다. 동시대의 동봉(董奉)과 『상한론(傷寒論)』의 저자인 중경(仲景)과 더불어 건안삼신의(建安三神医)라고 불린다. 조조의 병치료를 응하지 않아, 이에 화가 난 조조가 그를 압송하여 감옥에 가두고 처형한 일이 있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옥졸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책을 주려 하였으나, 옥졸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절하니 화타도 강요하지 않고 불에 태워버렸다. 이러한 고사를 김덕방 최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27) 앞의 책, 平尾道雄外 4人編(1976) p.41

28)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文祿の辰の乱における日本、朝鮮、明医学の交わり」 『日本医史学雑誌(52-2)』, p.274

29) 앞의 논문,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p.280

것이다.

우리 측의 사료에도 김덕방이라는 이름은 등장한다. 가령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은봉전서(隱峯全書)』,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등에 그의 이름이 보이는 것이다. 『난중일기』에는 1597년(정유) 10월 8일(乙丑) 부분에 「독송사(讀宋史)」가 적힌 다음 장에 「김덕방(金德邦), 김윤복(金允福)은 처음 벼슬에 나왔고」라는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즉, 『난중일기』에서는 그의 이름만 나올 뿐 정확한 활동상황은 알 수 없다. 그 반면 『은봉전서』에는 “又於望地浦尖山之戰。大立, 与宋大立, 金德邦, 大有捕獲”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그는 동강면 서북편에 위치한 첨산(尖山)에서 송대립 등과 함께 왜군과 일전을 벌였던 의병이었다. 다시 말하여 의원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한편 『호남절의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보이며, 1597년 3월 왜적선 수십 척이 보성땅 예진(曳津)에 침범하자, 그는 최대성(催大晟), 전방삭(全方朔) 등과 함께 대첩을 거두었으며, 노량해전 때 전사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김녕(金寧) 김씨 측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례7>

본관은 김녕이며, 거주지는 포두미후, 부친은 김유협, 자는 백언(伯彦)이며,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좌부장(龍槐衛左部將) 역임하였고, 임란 때 훈련원 부장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막하에 들어가 크게 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는 당포, 노량진 전투에서 왜선 수십 척을 불태우고 전사했다. 그리고 후손으로 일진(一珍)이 있다.³⁰⁾

이처럼 김덕방은 우리 측 자료에는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어있다. 더구나 그의 신분도 의관이 아니라 무과에 급제한 무장으로 되어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에서 말하는 김덕방과 우리 측의 기록에 남은 김덕방은 별개의 사람이다. 더구나 일본 측의 김덕방은 1593년(文錄2)에 시코쿠 도사에 끌려 간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이곳의 김덕방은 정유재란 때 당포, 노량진 전투에서 왜군과 맞서 싸운 의병이다. 그러므로 그는 고치의 김덕방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의사 김덕방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측에는 조선의 의관으로서 김덕방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일본 측의 기록에 간간이 나

30) 「김덕방」 『나의 뿌리 백촌 김문기선생 현창자료집』
blog.daum.net/38xix/14162491(검색일2016.08.13.)

타난다. 구와나 겐토쿠(桑名玄徳)가 지은 『침요집(鍼要集)』에 의하면 명나라 의사 운해(雲海)가 스승을 찾아 사방을 유력(遊歷)한 끝에 드디어 보사(補瀉)의 법과 사생의 결(訣)을 터득하였는데, 훗날 조선의 김덕(金徳=김덕방)이 이에 사사를 했다고 되어있다.³¹⁾

이러한 기사는 과연 조선인이 어떻게 명나라 의사에게 의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낳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종종 때 조선은 명나라 세종(世宗)에게 의관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명나라는 의관을 조선에 보내어 조선의 의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명나라의 의술이 직접 조선에 전해졌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 증거로 명종과 선조 때 대량의 중국 의학서가 번각되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김덕방은 바로 이 시기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중국 명의 운해에게 의술을 배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즉, 임란 이전까지 그는 운해로부터 의술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운해는 명나라의 남양(南陽) 사람으로 『침구택일편집논(鍼灸択日編集論)』을 저술한 중국의 명의로 꼽히던 사람이었다. 김덕방은 그의 제자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임란이 발발하자 조선을 침략했던 도사의 영주 초소카베 모토치카의 부하인 구와나 쇼칸(桑名将監=長生庵了味)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모기사(語謀記事)』에 의하면 그는 처음 도사의 다카오카군(高岡郡) 니이무라(新居村)에 정착하여 의원을 개업했다.³²⁾ 그러나 일본이 조선과 풍토에 맞지 않아 병의 치유가 되지 않아 고생하다가, 연구 거듭한 끝에 이내 극복하고 일본에서 명의로서 자리 잡아 갔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는 그의 의술을 시기하는 일본 의사들에게 독살되어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일본에 남긴 영향은 매우 컸다. 위의 『도사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비전(秘伝)이 일본에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술은 제자들을 통해 일본 의학계에 전수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경장연간(慶長年間) 초기에 가마다 간노쥬(鎌田勘之丞)가 지은 『치대보현기(治代普顯記)』에는 당시 교토(京都)와 오사카(大坂) 등지에 주요한 의학의 유파(流派)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년(先年) 모토치카(元親) 대에 고려에서 건너온 킨토流」라는 기술이 있다.³³⁾ 여기서 모토치카란 고치의 영주

31) 앞의 논문,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p.275

32) 앞의 논문,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p.276

이자 임진과 정유의 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초소카베 모토치카를 말하며, 고려는 조선을, 그리고 킨토는 김덕방의 일반 명칭인 경동(經東)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김덕방의 의술이 중앙의 의학 무대에서도 당당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본인들이 조선인 김덕방에게 의술을 배웠을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있었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파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를 포로로 잡은 구와나 쇼칸이 그의 손자 겐토쿠(玄德)과 함께 그에게 의술을 배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에서 본 『침요집』을 저술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김덕방을 통해 명나라 운해의 의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운해사류(雲海士流)라 하며 의업을 벌였다. 즉, 운해-김덕방-쇼칸-겐토쿠라는 학문적 계통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무라가미가(村上家)에 의술을 전수했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기록을 『양동창화후록(兩東唱和後錄)』³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의학서는 17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³⁵⁾ 일본의 침의(鍼醫) 무라가미 케이난(村上溪南)과 그의 아들 슈난(周男) 등과 함께 그해 9월 20일 통신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서본원사(西本願寺)의 숙소를 방문하여 조선의 명의 기두문(奇斗文)³⁶⁾과 침

33) 앞의 논문,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p.277

34) 진문은 1권1책이며 14장의 알파한 문서기록 형태에 가깝다. 별책으로 「양동창화별록(兩東唱和別錄)」과 「한사관직성명(韓使官職姓名)」이 붙어 있다. 앞의 것은 정사(正使)인 조태억(趙泰億)과 부사(副使)인 임수간(任守幹)과 주고받은 시를 적어 놓은 것인데, 남아 있는 내용은 1장짜리 결본이며 뒷부분이 빠진 것으로 두 편의 시부(詩賦)가 적혀 있다. 뒤의 것은 삼사(三使)를 비롯한 통신사절단 일행의 구성원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해에 일본에 온 사람을 총 497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7번째에 기록된 ‘의’에는 「양의전직장(良医前直長) 기두문(奇斗文)」을 비롯하여 「전주부(前主簿) 현만규(玄万奎)」, 「부사용(副司勇) 이위(李渭)」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 사적은 자세하지 않으며, 당시 헤민원에서 근무했던 의원들로 보인다. 원서는 1712년 낭속서림(浪速書林)의 무라가미 세이사부로(村上清三郎), 무라다 이베(村田伊兵衛) 등이 판각하였다. 현전본은 쇼헤사카 학문소(昌平坂學問所) 구장본(旧藏本)이며, 필담은 그해 12월 9일에 무라가미 케이난(村上溪南)이 정리한 것이다.<안상우, 「고의서산책 255」 『양동창화후록(兩東唱和後錄)』, 『민족의학신문』, 2005. 8.12. 참조 인용

35) 1710년 파견된 사절. 보통 신묘사행(辛卯使行)이라 한다. 이 때 일본 측이 유능한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의관이 포함되었으며, 1682년부터는 정식으로 양의(良医)의 직함을 가지고 사행에 참가하였다. 통신사절이 도착하면 일본인들은 의료선진국이었던 조선의 의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경로로 조선 의원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문담을 통해 얻은 신지식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책자를 남겼다.<안상우, 「고의서산책 255」 『양동창화후록(兩東唱和後錄)』, 『민족의학신문』, 2005. 8.12.> 참조 인용

36) 기두문은 호가 상백헌(嘗百軒)으로 서울 거주. 1710년(肅宗37)에 의원이 되어 이듬해 통신사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양동창화후록(兩東唱和後錄)』에서 그는 계림의 의관

술에 관해 나눈 필담을 나눈 것을 그 해 12월 9일 케이난이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보이는 의학적인 내용은 모두 침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 이유는 면담을 요청한 무라가미 케이난 등이 침구를 가업으로 하고 있는 일본 침구전문 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모두에 밝힌 기록자인 무라가미 케이난의 내력이다. 그는 기두문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자신의 호는 초재(樵齋)라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학문적 내력을 밝히고 있다.

<사례8>

태의이신 기공께 올림

고명하신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뵙게 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성이 무라가미(村上)이며, 자는 계남(溪南)이고, 호는 초재(樵齋)이며 집안대대로 침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선조께서 조선의 해운사(雲海士)의 제자인 김득배(金得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저도 그 원류를 본받아 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모두 선사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자질이 모자라 침술이 스승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간혹 그 요점을 어지럽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문난 점을 모아 감히 여쭙겠습니다.³⁷⁾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침술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렇게 된 계기는 자신의 선조가 운해(雲海)의 제자인 김득배(金得拜=김덕방)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덕방(김득배)의 침술은 무라가미 가문에 의해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고가와가(粉川家)에도 의술을 전수했다는 것이다. 고가와 하루요(粉川春与)는 원래 기이(紀伊)의 분하사(粉河寺)의 승려이었으나 모토치카의 빈객이 되어 누노시다무라(布師田村)에 살았을 때 경동에게 의술을 배웠으며,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였던 것이다.³⁸⁾ 그의 아들 고가와 겐세이(粉川玄成)가 남긴 『토좌국두한집목설(土佐国蠹簡集木屑)』에 경동(김덕방)의 서적이 전한다고 하고, 또 「경동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기물(朝鮮器物) 과자분(菓子盆)」 「경동이

선무랑(宣務郎)으로서 관직은 조산대부 전연사직장(朝散大夫典涓司直長)으로 되어 있다.

37) 차용석, 박하준, 안상우, 김남일, 신민규(2005) 「1711년 <양동창화후록>과 한일의학문 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02)』 대한동의병리학회. p.297.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醫伯公几下 高名瞻仰日久 幸今得挹光範 不勝欣悚之至 僕 氏村上 字溪南 号樵齋 家世業鍼 其伝來 祖先受貴国雲海士之弟子 金得拜之伝 僕得 法其原流 而繼箕裘之業 此皆先師之賜也 然資質頑愚 針刺法術 去師久遠 惑乱其要 故撮其疑者 敢問」

38) 內藤窩輔(1976)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746

인삼 자르는 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자분과 인삼 자르는 칼을 그린 그림을 『토좌기인전(土佐畸人伝)』 <卷4>에 남기고 있다.³⁹⁾ 이로서 김덕방이 그들의 집안에도 의술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는 나가다 도쿠혼(長田=永田徳本: 1513-1630)에게 의술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780년 기무라 겐테이(木村元貞=木村太仲)의 『침구극비전(鍼灸極秘伝)』(1卷)의 서문(自序)에 서술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가 있다.

<사례9>

이 한 권의 책은 옛날 경장 연간(慶長年間, 1596-1615) 가이국(甲斐国)의 명의인 나가다 도쿠혼(長田徳本)이라는 사람(『梅花無尽藏』)의 저자이 조선의 의관 김덕방(金徳邦)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침술이다. 그 후 다나카 치신(田中知新)에게 전수된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비전(秘伝)되어 전수될 때에는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갖춘 사람이 드물었다. 나는 경사(京師)에서 유학할 때에 이 침술을 오사카의 하라 타이안(原泰庵) 선생에게 배워 의심을 모두 해소하였다.⁴⁰⁾

즉, 저자 기무라 겐테이는 자신의 학문은 김덕방 - 나가다 도쿠혼 - 다나카 치신- 하라 타이안의 계보를 잇는 자라고 서문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다 도쿠혼이 김덕방에게 의술을 배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가다 도쿠혼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를 「의성(医聖)」이라고 일컬을 질 정도로 전설적인 명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1513년 현재 야마나시현(山梨県) 가이(甲斐)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불가에 출가하여 불교뿐만 아니라 수험도(修験道)를 배우고, 또 다시로 산기(田代三喜:1465-1544)⁴¹⁾, 교쿠테이(玉鼎) 등으로부터 당시 명나라에서 전래된 한방의학인 이주의학(李朱医学)을 익힌 다음, 시나노(信濃), 가이 등지에 살며 영주인 다

39) 앞의 책, 平尾道雄外 4人編(1976) p.41

40) 김덕방 저, 박상형·오준하 국역, 해제(2015) 『국역 침구극비전』 한국한의학연구원. pp.8-9

41) 무로마치(室町)와 전국시대에 활약한 일본의 의사. 후세파의학(後世派医学)의 개조. 마나세 도잔(曲直瀬道三: 1507-1594), 나가다 도쿠혼(永田徳本)와 더불어 일본에 있어서 중의학(中医学) 중흥(中興)의 시조로 일컬어짐. 산기(三喜)는 통칭이고, 이름은 도도(導道), 자는 조범(祖範)이라 했다. 그리고 범옹(範翁), 회옹(廻翁), 지산인(支山人), 의족헌(意足軒), 강춘암(江春庵), 일현(日玄), 선도(善道) 등 많은 호를 사용했다.

케다 노부토라(武田信虎:1494-1574), 다케다 신겐(武田信玄:1521-1573) 부자의 시의(侍医)가 되었다. 그 후 다케다 가문이 멸망하자 도카이(東海)와 관동(關東) 지역을 떠돌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고, 만일 받더라도 아주 싼 값으로 진료를 보았다고 한다. 저서로는 『덕본류구치서(德本流灸治書)』, 『덕본다하류침혈비전(德本多賀流鍼穴秘伝)』와 같은 침구의술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매화무진장(梅花無尽蔵)』, 『덕본옹십구방(德本翁十九方)』 등이 있다.⁴²⁾

전승에 의하면 그는 항상 목에 약봉지를 걸고 소 등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약 한봉지 16문(또는 18문)」이라 하여 더 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았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쥬로쿠몬(十六文) 선생」이라고 불렀다 한다.⁴³⁾ 그리고 임란 이후에는 막부의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1579-1632)의 병을 치유하였으며, 그 때도 보수를 받지 않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그는 본초학(本草学)에도 통달하여 103세 되던 해에 가이에 새로운 포도재배법을 개발하여 보급했다고도 한다. 현재 나가노현(長野県) 오카타니(岡谷市)에 그의 묘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만년에는 그곳에 거주한 것 같다.⁴⁴⁾

그는 1630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향년 118세였다. 그 기록이 맞다면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장수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가 김덕방에게 의술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그의 나이 80대의 일이다. 즉, 김덕방보다 훨씬 나이 많은 고령의 나이인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의술에 대한 학구열이 대단했던 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이력에서 보듯이 김덕방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일본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김덕방과 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의술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관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침구극비전』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내용이 나가다 도쿠혼이 조선인 의사 김덕방에게 배운 의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훗날 사혈(瀉血, 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채혈)에 관심이 지대했던 유럽으로 전래되어 유럽에 동양의 침술을 알린 대표적 서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의관 김덕방은 일본으로 끌려간 임란포로이었지만, 그가 가진 의술은 일본인 제자들에 의해

42) 宮下三郎(1957) 「徳本の伝説とその医学」 『日本医史学(15)』 日本医史学会関西支部, p.99

43) 矢部一郎(1989), 「永田徳本」 『国史大辞典(10)』 吉川弘文館. p.606

44) 앞의 글. 矢部一郎(1989) p.606

일본 의학계에 전수되었고, 또 그들의 후학들에 의해 의학서가 편찬됨으로써 유럽에까지 조선의 의술이 전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조선인 김덕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 일본사회에 정착하여 명의로서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그를 시기와 질투하는 일본인 의사들에 의해 독살당하는 불운하게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지닌 조선의 의술은 일본에 뿌리를 내려 일본의 의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시코쿠에 남아있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승과 놀이 가운데, 우와지마의 우시오니전승, 마쓰야마의 「도라마이」라는 호랑이 춤, 그리고 고치의 조선인 의사 김덕방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시오니의 기원을 임란 때 조선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우시오니는 주로 서일본 지역에 사는 요괴로 성격이 난폭하고 사람과 동물을 습격하여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재래종임에도 불구하고 에히메의 우와지마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호환을 막기 위해 만든 괴수의 인형이었다는 설과 가토 기요마사가 진주성을 공격할 때 사용했다는 구갑차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가가와현에서는 우시오니를 퇴치한 자가 임란에도 출전하여 조선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전승도 있었다.

둘째는 마쓰야마의 「도라마이」는 마쓰야마의 초대 성주이었던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출병한 가토 요시아키의 부대원들이 조선에서 벌인 호랑이 사냥을 소재로 만든 놀이이다. 더구나 이것은 이쓰쿠시마 신사의 가을 제전 때 공연되는데, 이 때 조선 호랑이는 세상을 무질서와 부정을 의미하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즉, 그들이 이를 퇴치함으로써 무용을 자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질서와 정화의 세계를 되찾는 구도 속에서 행해지는 놀이였다.

셋째는 조선인 의사 김덕방의 슬픈 인생의 이야기이다. 그는 일본에서 경동, 김덕, 김덕허, 김덕허덕원, 김득배, 김득허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조선인 명의이었지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본의사의 무리들에게 독살당한 인물이다. 그의 의술은 제자들에 의해 전수되어 일본사회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우시오니는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강조하고, 호랑이 춤은 그들의 무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김덕방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선인들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따돌림 당하고 끝내 독살될 정도로 일본 정착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잘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이상의 세 가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인해 발발된 임진과 정유의 왜란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 중, 일 모두 참가한 세계대전이었다. 더구나 전장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이었다. 그러므로 한국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컸다. 그것으로 인해 다량의 우리의 문화재가 사람들과 더불어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일본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시오니와 도라마이라는 놀이를 통해 임란은 자신들이 결코 진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술을 일본에서 헌신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기하는 일본 의사들의 무리들에게 독살당하는 조선인 의사 김덕방의 생애도 너무 안타깝다. 그는 자신이 마신 독극물을 해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독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까? 그는 그렇게 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오죽하였으면 자신의 의학 비서가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여 불에 태워 없애버렸을까?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그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일본인들의 시기와 질투, 경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인들을 발굴하여 살리고, 또 임란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하며, 이를 놀이문화로 만들어 즐기는 행위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김덕방저, 박상형·오준하 국역 해제(2015) 『국역 침구극비전』 한국한의학연구원, pp.8-9
 차용석, 박하준, 안상우, 김남일, 신민규(2005) 「1711년 <양동창화후록>과 한일의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02)』 대한동의병리학회. p.297.

- 최경국(2011) 「에도시대 말 대중문화 속의 호랑이 사냥 - 가토기요마사를 중심으로-」
『일본연구(48)』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58
- 함정식(2010) 「조선통신사의 침뿔 의학교류 - 『양동창화후록』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연구(10)』 조선통신사학회, p.14
- 香川県教育委員会編(1979) 「増真上人伝」 『新編香川叢書 史料編(1)』
- 内藤寯輔(1976) 『文禄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746
- 西川宏(1984) 『岡山と朝鮮』 日本文教出版, p.93
- 平尾道雄外 4人編(1976) 「土佐国崎人伝」 『土佐之国史料類編 皆山集(5) -歴史(4)編-』 高
知県立図書館, p.40
- 松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2006) 「文禄の辰の乱における日本、朝鮮、明医学の交わり」 『日本
医史学雑誌(52-2)』, p.274
- 宮下三郎(1957) 「徳本の伝説とその医学」 『日本医史学(15)』 日本医史学会関西支部
- 矢部一郎(1989) 「永田徳本」 『国史大辞典(10)』 吉川弘文館, p.606
- 吉田和祐(2010) 「日本における鍼灸の歴史 -室町から江戸期にかけての受容と発展について-」
『日本鍼灸学研究(5)』 日本鍼灸学会, p.36

논문 투고 일자 : 2017. 05. 14.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要旨>

日本四国における壬乱の伝承と芸能

魯成煥

本稿は四国に残っている壬辰倭乱と関連のある伝承と芸能に関して調査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宇和島には牛鬼伝承、松山には「虎舞」、そして高知には朝鮮人医者金徳邦の伝承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それらに対して考察したことは次のように整理ができる。一番目、牛鬼の起源を壬乱の際、朝鮮で起った事件に求める傾向が強い。それは元々日本で自然に発生した在來種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宇和島では壬乱の際、朝鮮に駐屯した日本軍の虎患を防ぐために作った怪獣人形であったという説と加藤清正が晉州城を攻撃する時に使用したという亀甲車という説がある。その反面牛鬼を退治した人物が朝鮮で掠奪した宝物をもって帰国したという伝承もある。二番目、松山の「虎舞」は加藤吉明の家来たちが朝鮮で行った虎退治を素材にして作った芸能である。これは毎年巖島神社の秋祭りの時に公演されるが、この時の朝鮮の虎は世の中を無秩序と不浄にする悪役を担当している。三番目、高知の朝鮮人金徳邦は朝鮮の鍼学を日本に伝えた名医であったが、これを嫉妬する日本人医者らに毒殺された人物であった。このような伝承と芸能はいかに日本で壬乱の歴史が歪曲され、また専門知識と技術を持った朝鮮人たちが日本社会に定着することが難しかったのかをよく反映していると思われる。

A Study of the tale and play of the Imjin war in Shikoku region

No Sung-hwan

This article is about the tale and play of the Imjin war in Shikoku region. More specifically, it aims to analyze the transmission of the Ushi-oni tale in Uwajima, Tora-mai in Matsuyama and the Joseon doctor Kim duk bang's tale in Kochi Prefecture. People tend to approach Ushi-oni's origin as a incident in Joseon during the Imjin war. Even though Ushi-oni was a Japanese native, it had been related with the monster doll that was used by the Japanese army for protection from the tiger attacks and associated with the war wagon that was used by Kato Kiyomasa's army during the Battle of Jinju Castle. The Tora-mai was originated from the tiger hunting by the Kato Yoshiaki's troops during the Imjin war. The Tora-mai is usually performed during the fall festival by the Itsukushima Shrine, and the Joseon tiger symbolizes chaos and impurity. The Joseon doctor Kim Duk bang was the skilled doctor who helped the spread of the Joseon traditional medicine in Japan, but he was poisoned by the Japanese doctors who is jealous of his skill. This study shows that the historically distorted perceptions of Imjin war and also reflects harsh settlement life of Joseon captives in Japanese society.